

2026년 7월 13일

Hana FX Daily Letter

환율 내리막길 다시기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달러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과 당국 경계심리 속 하락

daily range 예상: 1,490~1,505원

- 지난주 금요일 정책당국이 다시 한번 구두개입에 나서면서 환율 상단에 대한 경계감이 견고해짐. 여기에 국내 주요 반도체 업체의 ADR 상장 자금 유입 기대와 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 소식 등이 더해지며 달러 매도 우위의 수급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 특히, 고점 인식 속에 수출업체들이 매도에 나설 경우 하락폭 확대되며 1,49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할 전망. 다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와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저가 매수세 유입은 하단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일 동향 : 10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1.0원 하락한 1,498.5원에 마감. 미국과 이란 간 교전 소식 등 중동 리스크가 부각된 영향으로 1,510원대 초반까지 상승. 그러나 당국의 구두개입과 중공업체 선물환 매도세에 급락하며 1,500원대 초반에서 주간 거래를 마감. 이어진 야간 거래에서는 국내 반도체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감이 반영되며 1,498.5원까지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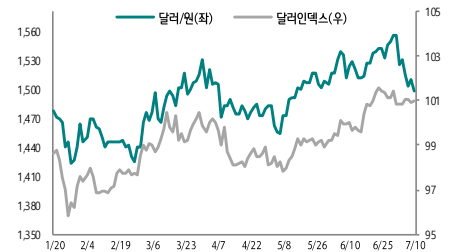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미국과 이란의 공습 지속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전면전보다는 협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 전망이 우위를 보이면서 달러 강세 폭도 제한됨
- (유로-달러) 호르무즈 해협 인근 공습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변동성을 보이자 유로화는 약세 압력을 받음
- (달러-엔) 일본 연기금의 국내 투자 확대 가능성에 엔화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 기대감이 유입되었고, 이에 엔화는 큰 폭의 강세로 전환하며 161엔대로 급락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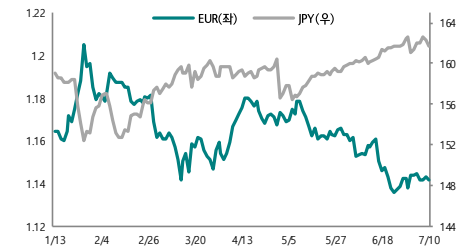
- 이번 주 외환시장은 달러 자금 유입 가능성과 금통위의 금리인상 기대 등 환율 한방 압력을 높일 변수들에 주목할 전망. 지난주 1,500원선을 하회하기 시작한 달러/원 환율은 이번 주 하단을 더 낮출 가능성이 높아 보임. 우선 가장 강한 하락 동력은 달러 매도 중심의 수급 여건으로 판단됨. 국내 반도체 기업의 미국 증시 ADR 상장에 따른 대규모 달러 자금 유입이 예정된 데다, 중공업체의 선물환 매도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됨. 여기에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의 매도 물량까지 가세하면 환율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음. 주 후반 예정된 한은 금통위도 원화 가치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양호한 성장률과 고환율 부담,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됨. 시장 선반영으로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연준의 긴축 우려로 인한 강달러 압력을 일부 상쇄해 줄 것으로 예상. 한편,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선언 등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임. 아직까지 전면전 가능성이 낮고 국제유가 오름폭도 제한적이기에, 환율에 미치는 상방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결론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보다 수급과 한은 긴축에 따른 하방 압력이 우세한 가운데, 원화 환율은 1,400원 후반대로 한 단계 레벨을 낮추는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고가	저가	NDF
달러/원	1,506.7	1,513.5	1,498.5	1,498.2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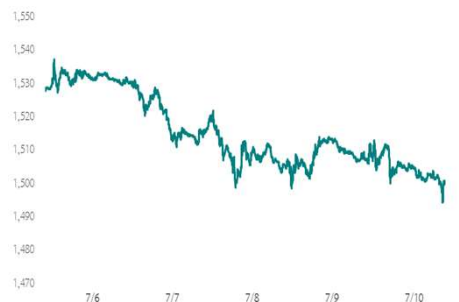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415	161.74	6.7819
전일대비	-0.0015	-0.64	-0.0151
재정환율	1,711.32	926.93	221.05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18:25	보먼 연준 부의장 연설		
01:30	월러 연준 이사 연설		
01:45	슈나벨 ECB 집행이사 연설		

최근 달러/원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